

설 화

차 례

1. 너븐 오장 이야기
2. 도채비불 이야기
3. 예촌리 신 이야기
4. 거옥대 이야기
5. 영동할망 전설
6. 허씨장사 이야기

1. 너븐 오장 이야기

① 옛날에 신예부락에 오창렬이라고 하는 장사가 살았다. 무척 힘이 센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기르는 궁매를 보살피는 사람이 그 궁매를 기르는 들에 정을 놓았다. 그런데 어떤 한 점잖은 훈장이 말을 타고 오다가 그 정 앞에 다다랐는데 그 정또지기가 정을 열어주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 훈장이 들어가지를 못하다가 그 때 이 곳에 살던 오침이 하르방(힘센 하르방)이 그 훈장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말을 통째로 들어서 옮겨주어도 괜찮은지를 묻자 훈장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오씨 하르방은 훈장이 말을 탄 채로 그냥 번쩍 들어서 정 안에 옮겨다 놓았고, 이에 정또지기가 겁을 먹었다고 한다.

② 연자방아를 만드는 석씨가 연자방아를 만드는데 돌을 일으켜세우지 못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으켜봤지만 일으킬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오씨 하르방이 내가 혼자서 이 돌을 일으키면 무엇을 주겠냐고 하였다. 그러자 석씨는 오씨 하르방이 이 돌을 일으켜 세우면 연장을 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씨 하르방이 돌을 혼자서 일으켜 세우고는 연장을 다 압수하여 집에 왔다. 연장을 오씨 하르방이 모두 가져가 버리자 석씨는 연자방아를 만들 수 없었다. 사람들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자 돼지를 잡아 오씨 하르방을 잘 대접하고 모셨다고 한다.

③ 오씨 하르방이 의귀리 경주 김침이네 하고 묘자리 때문에 인연을 갖게 되었다. 한 번은 선묘 주위에 의귀리 경주 김씨 집안에서 묘를 쓰러 하자 양가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김씨 집안은 권세가 대단하여 선묘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에 장정을 배치하여 얼씬 못하게 하였다.

오씨 하르방이 족형 몇 분을 모시고 현지에 당도해 보니 장사 지내기 위한 개광작업이 한창이고 경계가 삼엄하였다. 현지에서 양가 간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개광하던 팽이를 호미 다루듯 했고 찻대(사영 밑에 쓰는 크고 긴 통나무)를 막대 다루듯 하여 수명의 장정들을 때려 눕히자 김씨 일가에서 살인날 것이 두려워 공을 묶어 버렸다 한다.

그 후 김씨 집안에서 보복이 무서워 회유책으로 오씨 하르방의 집안에 빈곤한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양곡을 주기로 하였다. 전갈을 받은 오씨 하르방은 큰 창맥(양곡을 담은 짚으로 짠 그릇)을 갖고 의귀리에 있는 김씨 집안으로 갔다.

김씨 집안에서는 한 사람이 등짐으로 지고 가는 것이라 대단한 양이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콩 20말을 지고 나오자 과연 혼자 지고 가는지 사람을 보내어 미행해 보게 하였다. 오씨 하르방이 얼마를 가다 콩을 짚어진 채 소피를 보자 혀를 내두르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오씨 하르방은 평소에 무명 혁대는 약해서 사용 못하고 총베(말총으로 만든 질기 베)를 사용하였고, 그 시절은 대체로 의·식 해결이 어려운 시절이라 명절 때를 제외하고는 늘 시장기를 느꼈다고 한다. 그의 후손으로

는 서귀포시 호근동에 거주하는 당손인 만송씨와 하효동에 거주하는 봉의 씨가 있다.

④ 묘자리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는 모르나 잘 해결이 되어서 경주 김칩이가 오씨 하르방에게 나중에 궁색한 일이 있거든 찾아오라고 하였다. 어느 날 흉년이 들어 오씨 하르방이 맥을 매고 그 집애 찾아갔다. 경주 김칩이가 줄 건 없고 저기 콩이라도 가져가라고 하여 할머니가 오씨 하르방이 짙어진 맥에 콩을 부어넣는데 아무리 넣어도 오씨 하르방이 그만 넣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콩을 집어넣었는데 맥이 다 차가자 할머니가 이거 가져갈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다. 오히려 오씨 하르방은 콩이 없으면 이것만 가져가겠다고 말하고는 가버렸다.(혹은 이제는 콩 넣는 사람 팔도 아픈 거 닭고 그만 하자 하여 일어났는데 남은 콩이 없었다.) 집주인 영감이 종을 시켜서 누가 와서 같이 짙어지고 가는지 아니면 혼자 짙어지고 가는지 가서 보고 오라 하였다. 종이 오씨 하르방 뒤를 쫓아가는데 오씨 하르방이 백인발에 이르러서 짐을 부려놓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짙어진 채로 옷을 내려서 대변을 싸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길을 갔다. 그것을 본 종이 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자 주인은 매우 놀랐다고 한다.

2. 도채비불 이야기

한 백여 년 전에 신례리 안에 광정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이 광정도라고 하는 곳은 호열자가 돌았을 때 병 걸린 사람들을 데려다놓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니다가 도채비에 홀려서 도채비를 따라가게 되었다. 도채비가 이 사람을 물 깊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 무섭냐 하고 물으니 그 사람이 '아, 여기 나 맨날 물 길러 다니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자 도채비가 다른 이곳, 저곳을 데리고

다녔으나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내조숨이라 하는 곳 위 (혹은 메밀꽃이 하얗게 핀 목장)에 데리고 가서 여기 무섭냐고 물었다. '아, 나 여기 무섭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그 사람을 거기다 두고 가버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깨서 정신이 들고 보니 메밀밭에 있었다고 한다.

3. 예촌리 신 이야기

한라 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과 강남천 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 그리고 서귀포시 상호동경에 있는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 세위의 신은 예촌 본향당신이다.

백록담에서 솟아난 브롬뿔님은 성장하여 신중 부인을 거느리고 백록담을 떠나 차츰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서귀포시 상호동경의 제왓지골이란 곳에 이르고 보니 칠 오름에 푸른 군막이 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어떤 어른들이 저렇게 휘황하게 차려 놓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 브롬뿔님은 부인을 토평리 허씨 집 과부택에 맡겨두고 칠오름에 군막쳐 있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세 분이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다. 수작을 하고 보니 한 분은 한라영산에서 솟아난 백관님이고 한 분은 강남천 자국에서 솟아난 도원님이고 또 한 분은 칠오름에서 솟아난 도병사였다. 네 신은 마주 앉아 인사를 나눈 후 연령의 위아래를 가리는데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웠다. 한참을 의논 끝에 바둑을 두어서 이기는 이가 형이 되기로 합의하였다. 바둑판을 앞에 놓고 한 점 두 점 붙이다 보니 백관님과 도원님과 도병사 세위는 한 패가 되어 서로 후원을 하고 브롬뿔님은 외톨이가 되어 버렸다.

결국 브롬뿔님은 지고 말았다. “내 바둑은 졌습니다. 세 분을 형님으로 위하지요. 형님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은 즉 우리는 형이니 당연히 윗

마을을 차지해야지. 그러면 저는 아랫마을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백관님, 도원님, 도병사 세위는 윗마을인 예촌을 차지하여 예촌 분향당신(本郷堂神)이 되고 벼롬못님은 아랫마을인 보목리(甫木里)로 내려가서 보목 분향당신이 되었다.

예촌 분향당인 큰당은 서귀포 박씨 무당이 19대에 연이어 관리를 하는데 다른 무당들은 이당에 가면 사족(四足)을 쓰지 못하고 말도 만나와 무당일을 못한다고 하며 신하례리 상하동의 많은 가정 부인들은 마을이 무사함과 집안의 편안을 기원하는 뜻에서 1년에 한 차례 또는 성의가 더한 사람은 두 차례씩 음력 2월 8일과 3월 13일, 7월 13일 중 택일하여 정성껏 제물과 천, 지폐 등 분향당 앞에 올려 기도하여 자녀들이 결혼하면 신부의 어머니는 신랑집으로부터 납폐로 받은 천 몇 자를 잘라 그 천 양쪽에 쌀을 싸서 당신에게 인정을 걸면 신혼부부가 화합하여 잘 산다고 하며, 군대가 있는 아들이나 객지에 나가 사는 자녀들의 편안을 위해 “액막이”라고 해서 역시 천 양쪽에 쌀을 싸서 신에게 인정걸면 “액”을 당하지 않는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종교가 성행한 오늘에도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속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4. 거육대 이야기

옛날에 신례촌에 원인 모를 불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사람들은 화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잘 때도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잤다. 불은 하룻밤 새에 5~8발에 연달아 났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것이 귀신의 짓 혹은 도채비 불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의 들하르방 같이 생긴 탑을 쌓았다. 그러나 지금은 4·3사건 때 이후로 전부 사라져 버렸다.

5. 영등할망 전설

매년 정월 보름이면 영등할망이 신례리 영등물에 들어왔다가 3월 보름날 나간다. 영등할망은 들어오면서 각종 해산물의 씨앗을(미역씨, 전복씨, 소라씨 등) 갖고 와 바다 속에 뿌리게 되는데 이때 뿌리는 양이 많으면 해산물이 풍년이 들고 적으면 흉년이 든다는 것이다. 들어올 때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을 데리고 오는 해는 영등할망이 머무는 기간 동안 날씨가 좋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해에는 계속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딸은 날씨가 좋아야 입성불리게(옷을 잘 입고 자랑함) 하기 위함이고 며느리는 날씨가 나빠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안에서 길쌈을 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니 고부간의 갈등은 동서고금은 물론 그 신의 세계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정월 보름에 들어온 영등할망은 3월 보름날은 영등물을 떠나 소섬을 거쳐 돌아가게 된다. 영등물을 떠난 영등할망은 조진여를 거쳐 소섬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복이나 소라 등을 잡아먹고 빈 껍데기는 그대로 바다 속에 버린다. 그런데 3월 보름을 전후해서 바다 속에는 빈 전복껍질이나 빈 소라껍질이 해녀들의 눈에 자주 보인다니 자연의 섭리가 오묘한 것 같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해산물의 생태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의 조화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6. 허씨 장사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0여년전인 1780년경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식량난이 심각한 때여서 식량을 탈취하려는 강도들이 성행했었다. 이 무렵 한 강도는 역귀통(逆歸統), 양정룡의 집에 식량을 탈취할 목적으로 그로부터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속칭 '갈남통' 어느 집을 밤중에 방화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진화하기 위해 출동한 틈을 이용하여 목적인 양정룡 집에 침입 식량을 약탈하고 이때 도둑이라고 외쳤을 것으로 짐작하는 아기업개를 무참히 죽이고 도망쳐 버렸다. 이 집 주인은 진화 후 귀가하여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피냄새가 나면서 발에 무엇인가 걸림으로 불길한 예감에서 불을 켜보니 아기업개는 목이 잘린 채 죽어 있고 방안은 피가 낭자하였고 그 때 다섯 살이었던 아기도 없어졌다. 아기를 부르며 한참 찾다보니 굴뚝(방 때는 곳)속에 숨어서 화를 면하여 살아났다.

이 때 집 주인은 이 사실을 정의고를 관가에 고발하니 관가에서 직접 현장 조사해 본 결과 너무나도 잔인 흉악한 범행이었으므로 범인을 잡기 위해 전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리고 범인을 잡은 사람에게 벼슬을 주기로 하는 현상까지 걸었다.

그 후 사망에서 용의자가 잡혀 왔는데 이때마다 아기를 관가로 불러서 원님 무릎에 앉힌 채 이놈이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놈이 아니라고 또렷하게 대답하였다. 용의자 여럿을 대질시켜도 아니라 함으로 범인 잡기를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을 무렵 하례리에 사는 허모란 사람도 힘이 장사였는데 범인을 잡을 목적으로 유심히 거리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하루는 이 허씨가 지금의 호근리와 흥리 사이에 있는 속칭 “원통과원” 쪽의 샘물가에서 흉악하게 보이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곱슬머리에 얼굴이 시뻘겋고 눈도 붉은 놈이 웃옷을 벗고 이를 딱딱 잡고 있었다.

허씨는 이놈이 범인일 것으로 단정하여 붙잡을 계획으로 숨을 죽여 접근하여 큰 돌로 그 놈의 어깨를 내려쳤다. 이에 힘이 센 강도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기진하여 쓰러지니 이놈을 포박하여 정의고를 관가에 바쳤다. 이에 또 다시 5세인 아기를 불러오게 하였다. 전과 같이 원님에 앉힌 채 저 놈이냐고 물으니 쳐다보고는 ‘으양’하고 울면서 기절하여 버렸다. 원님은 이놈이 범인임을 알아차리고 문초를 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처형하였다. 강도를 잡은 허씨에게는 “성장(成長)”이라는 벼슬을 주어 치하하였으니 그 분의 묘는 신례리에 “허가의 산좌전”이라 하여 지금도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아기에게는 붓과 벼루, 떡을 상으로 주시면서 아기가 성장하면

한양으로 보내어 공부 시키라는 당부까지 하셨다.

이후 아기는 제주에서 공부를 하고, 신례에서는 처음으로 도훈장(都訓長)을 지내며 한양을 자주 왕래하면서 관·혼·상·례의 모든 예법을 배워와서 보급하니 신촌(禮村)하면 예법이 밝은 고장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지금도 200여 년 전에 쓴 가승(家承)이 가보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승에 근거해서 실묘(失墓)했던 14세, 15세의 선묘도 찾게 되었다.

또한 서기 1601년 (선조 34년)에 문충기(文忠基)가 주동으로 반란하여 문씨 가문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자 후손들이 화를 면하기 위해 비석을 숨겨버림으로 실묘했던 성주공(星主公) 18세 양수율(梁壽律)의 배(配)인 문씨 할머니 묘도 이 양국장씨(梁國璋氏)가 퇴매 동산에 소를 먹이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산담 위에 앉아 부싯돌을 찾기 위해 돌담을 꺼내다가 숨겨두었던 문씨 할머니의 비석을 발견하여 실묘했던 묘를 찾게 되었다 한다.

신례리에는 허씨가 살지 않고 하예리에 허씨 장사가 살았으나 방화를 저지르고 아기업개를 죽인 흉악한 범인을 찾는 과정에서 허씨 장사가 도움을 주었기에 신례리에 허씨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제보자: 양남교 (93세, 20세에 일본에 갔다가 33살에 귀국)

양석조 (85세), 양윤식 (85세), 김근우 (68세), 양경옥 (76세)